[UCI]I804:24011-200000236344

2008년 2월
교육학석사(정보・컴퓨터교육)학위논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정보・컴퓨터교육전공

박 은 경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eenagers' Internet Addiction on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정보·컴퓨터 교육전공

박 은 경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정보·컴퓨터교육)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정보·컴퓨터 교육전공

박 은 경

목 차

ABSTRACT ····· *VI*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4

II. 이론적 배경 ····· **5**
1. 인터넷 중독 ····· 5
2.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 ····· 13
3.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력 ····· 15

III. 연구방법 ····· **19**
1. 연구 모형 ····· 19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20
3. 측정 도구 ····· 21
4. 자료 분석 및 처리 ····· 27

IV. 연구결과 및 분석 ····· **28**
1. 인터넷 중독 집단의 분류 ····· 28
2.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중독 성향 ····· 2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 33
4. 상관관계분석 ····· 35
5. 인터넷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36
6. 인터넷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 38
7.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에 대한 영향에서 학년에 대한 차이 ····· 40
8.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에 대한 영향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 ····· 45

V. 결론 ····· **51**

참고문헌 ····· **53**
부록.설문지 ····· **57**

표 목 차

<표-1> 인터넷 중독의 하위 구성요인별 개념 ····· 12
<표-2> 연구 대상자의 학년 및 성별 인원 분포 ····· 20
<표-3> 인터넷 중독 진단 검사의 하위요인별 내용 ····· 22
<표-4> 인터넷 중독 수준 분류 기준표 ····· 23
<표-5> 인터넷 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24
<표-6> 자기통제력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 26
<표-7> 연구 대상자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빈도 ····· 28
<표-8>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 ····· 31
<표-9> 학년에 따른 차이분석 ····· 33
<표-10>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 34
<표-11> 인터넷 중독, 인터넷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 35
<표-12>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 36
<표-13>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37
<표-14>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37
<표-15>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38
<표-16>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 39
<표-17>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 39
<표-18>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 40
<표-19>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 41
<표-20>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 41
<표-21>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 42
<표-22>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 43
<표-23>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 44

<표-24>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 44
<표-25>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 45
<표-26>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 46
<표-27>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 47
<표-28>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 47
<표-29>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 48
<표-30>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 49
<표-31>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 49
<표-32>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 50

그림 목차

[그림-1] 효능기대와 결과기대 ····· 14
[그림-2] 연구 모형 ····· 28

ABSTRACT

Effects of Teenagers' Internet Addiction on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Eun Kyoung-Park
Advisor : Prof. Joon Lee, Ph.D.
Major in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ternet addiction tendencies of teenagers' by grade, gender, and the type of Internet use.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among teenagers in cyberspace with Internet addiction tendencies and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se variables on these tendencies.

This study intendes to provide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parents and teachers to understand students in cyberspace, to set a basic direction for the education of teenagers', and to develop an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3 students from high schools located in Dong Gu, Gwangju city. Measurement tools used were the Internet addiction scale, the scale of self-efficacy in the cyberspace, and a self-control scale.

To process the collected data, the SPSS 15.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have also been conducted for the collected data.

Through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made.

First, concerning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by group, the high-risk and potential risk groups were 5.8% and 9.4%, respectively, which indicates that users at an Internet addiction level amounted for about 15.2%.

Second, results of the basic analysis of overall responses and the types of Internet use showed private blogs to be at(35.0%), and Games(28.6%)at.

Third, between grades, there is little meaningful difference in Internet addiction and self-control, which means the first grade and the second grade are on the similar level. Also they are similar in the Internet-self-efficacy, but the first grade shows higher Internet-learning -efficacy than the second grade.

As regarding gender, male students show higher rate of potential risk and high-risk groups than female students. As regarding self-effic acy, male students show higher connection-formation-efficacy of Internet than female students. As regarding self-control power, male students show higher self-action-control power than female students.

Forth, as higher Internet addiction degree is, higher Internet-use-con fidence, Internet-learning-efficacy, and Connection-frmation-efficacy of Internet are, which belong to efficacy level of students with use of Internet, but lower Intention-exchange-efficacy of Internet is. Also, more serious Internet addiction degree is, lower control power of connection with other person or self-action-control power specially tend to b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발표한 디지털기회지수[1)](DOI)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IT 강국 코리아'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6월 현재 만6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이용률은 75.5%이며, 2006년 6월 대비 인터넷이용률은 73.5%에서 2.0%, 이용자수는 33,580천명에서 34,430천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만 6세에서 19세까지 연령대의 경우 98.7%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중·고등학생의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이메일은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82.1%)이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카페・커뮤니티 이용률은 39.9%로 나타났다. UCC(이용자 손수 제작물)의 주요 플랫폼인 블로그・미니홈피는 40.0%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의 61.6%가 3년 이상 장기 운영자이고, 33.1%는 블로그・미니홈피 운영을 위해 금전적 비용을 지출(월평균 5.6천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특히 인터넷 이용률과 비례해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더해 가고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게임, 채팅, 음란물 접촉 등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성적하락, 시력저하, 두통, 불면, 식욕부진, 근육긴장, 집중력 저하, 무기력, 가족관계의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 등의

1)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 : 인터넷 보급률 같은 인프라 보급과 소득 대비 통신요금 비율 등 기회 제공, 인터넷 이용률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국가의 정보 통신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 정보 사회 세계 정상회의(WSIS)에서 채택한 공식 지표, 경제 협력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 개발 회의(UNCTAD),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등 11개 국제기구가 합의한 검증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산출하여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이 발표하는 공신력 높은 지표로서, 2005년 튀니지에서 열린 WSIS에서 우리나라 DOI 지수 세계 1위임이 공식 발표된 바 있다.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한다[2]. 인터넷이 제공하는 무한한 정보의 세계는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개방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의 유용성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전제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만약 이러한 전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초·중·고생 및 대학생 706명, 일반국민 348명, 학부모 및 교사 33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고위험 중독 징후인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불안한 편'이라고 답한 청소년이 0.7%로 일반국민(0.3%)에 비해 높았다. 9~24세 인구가 1000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7만 명 정도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2006년 5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인터넷 고위험 중독 청소년들이 30만 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위험 중독보다 한 단계 낮은 잠재적 위험 중독에 해당하는 '한 번 인터넷에 접속하면 좀처럼 끊기 어렵고 집착하는 편'의 청소년 응답률은 15%였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중독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실제 인터넷에 중독된 학생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3]. 또한 인터넷은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되면서 게임중독, 사이버 성 중독, 음란물 중독, 넷 강박증, 사이버 범죄,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터넷 중독 현상과 관련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간접 경험은 실제 경험한 것보다 더 위력이 크다. 보고 들은 것을 비판 없이 수용해서 그대로 현실에 옮기게 된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처형되는 동영상을 보고 이를 흉내 내다 죽은 10대가 세계에서 12명이나 된다는 외신 보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4].

청소년기는 건강한 정서발달과 인격발달을 지향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에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가상공간이나 현실을 혼동한 폭력적 행동을 보이거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일탈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등 학교생활의 부적응 문제행동을 보이며, 사회적 고립감, 친밀감 결여, 사회성 저하, 우울증 유발 등의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며 충동성, 불안정성, 폭력성 및 공격성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일반적 청소년기의 정서 특징과 더불어 학업 수행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소원해지면서 오는 정서교류 차단 및 지지의 부족, 또래 집단과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이 과중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실에서 느끼는 불만족감을 해소하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5]. 또한, 발달 초기 역기능 피해가 성인기로 이어질 경우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 및 교육기관과 사회의 대책 모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오원이 인터넷 중독예방중독센터장은 “사례별로 학부모나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고,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중독과 위험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다[6]”고 강조했듯이, 이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사회 각계에서 인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과제가 되었다.

10대의 뇌는 많은 경험을 통해 성숙된다. 경험은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말초적 경험이 편협한 사고로 굳기 전에 청소년이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지는가를 인터넷 중독을 결정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보고,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등학생의 학

년별과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및 중독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년(1학년·2학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성별(남·여)에 따른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중독

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중독을 의미하는 'Addiction'의 어원은 라틴어로 'Addicene'라고 한다. 이 말은 원래 '동의하는 것, 굴복하는 것, 양도하는 것'이라는 뜻이며, Winn에 의하면 중독은 어떤 즐거운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또,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고 그 행위를 하면 안심이 되고 기쁨과 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7]. 이러한 중독은 증상들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만성화되어 신체, 심리, 사회 및 직업 활동에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중독의 개념을 신체의 위험 증상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모든 대상에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물질적인 것에 의한 중독뿐만 아니라 물질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행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그 행위나 활동을 반복하는 것도 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컴퓨터 보급의 확산과 함께 '컴퓨터 중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정보의 국경이 없어지는 소위 '정보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1996년에는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8].

Goldberg는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을 일컬어 '인터넷 중독 장애(IAD: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를 제안하였고 후에 자신이 제시한 인터넷 중독 장애 대신에 병리적 컴퓨터 사용으로 수정하였다[9].

인터넷 중독 판단기준을 제시한 피츠버그 대학의 Young은 인터넷 중독이 흡

연, 알코올, 약물과 강박적 도박, 쇼핑 등의 중독적 문제 행동과의 유사함을 언급하면서 병리적 도박이나 섭식장애와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중독자의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직업적 생활을 명백하게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인터넷 중독 기준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강박적 집착, 인터넷 등 온라인에 접속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 통제력의 상실,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강박적인 사용,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증상들에 대한 자각 및 주위의 염려 등 4가지 특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Young은 DSM-IV의 병적 도박 기준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8개 기준을 제시하고 5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중독자로 분류하였다[10].

(1) 점점 오랜 시간을 온라인 접속해야 직성이 풀리게 된다.

(2) off-line시에 금단 증상을 호소한다. 즉 우울증의 증가, 무드를 탐(moodiness), 초조해지고, 짜증남(irritability), 안절부절못함(psychomotoragitation/restlesness), 불안, 강박적 사고(obsessive thinking), 환상, 꿈, 타이핑(typing), 손놀림 등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며, 위 증상 때문에 다시 통신에 접속하게 된다. 흔한 예는 접속을 끊고 나오면 점점 우울해지는 것이다.

(3) 의도했던 것보다 자주 또는 오랫동안 접속, 인터넷 상에서 장시간을 소모한다.

(4) 통신 접속을 줄이려 했으나 실패한다.

(5) 온라인 접속 시간을 늘리기 위한 시도(수업을 빼먹는다거나,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잠자리에 늦게 들거나 일찍 일어남)를 한다.

(6)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는 여가 활동에 흥미를 상실한다.(취미, 남들과 어울리는 것, 친구와 전화 연락하는 것 등에서)

(7) 인터넷 사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나 더 나빠졌어도 (직장, 학교, 재정 또는 가족 문제 등) 인터넷을 계속 사용한다.

(8)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때에도 빨리 접속해 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다.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이란 용어가 사용 행위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중독 장애(IAD), 인터넷 증후군(internet syndrome), 웨바홀리즘(webaholism), 가상 중독(virtual addiction), 병리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 PIU), 강박적 인터넷 장애(compulsiver internet disorder), 컴퓨터 및 가상공간 중독(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인터넷 의존(internet dependence; ID), 문제적 인터넷 사용(problematic internet use), 인터넷 남용(internet abuse), 인터넷 관련 질환(internetrelated disorders)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남동현은 “정보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11], 한경아는 “인터넷 중독은 내성과 금단현상 및 심각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12], 이순묵 등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시작된 인터넷 사용 행동이 점차 사용시간이 증가되어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지속하게 되고, 중단했을 때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쾌감과 불만족감을 초래하여 분명하게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통제력을 상실하고 부적응적인 인터넷 사용 행동이 지속되고 있을 때”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3]. 또한 김청택 등은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개인이 통제력을 잃어 생활양식이나 기능수

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터넷 중독이라 정의한다[14].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원인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다양한 사회와의 접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대인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임과 동시에 재미를 주기 때문에 흥미를 끌면서 인터넷에 더욱 중독되게 된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쉽게 몰입하는 이유를 다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므로 현실세계의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편안함과 사회적 간섭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쉽게 가상세계에 매료되게 된다.

둘째, 인터넷상에서는 수많은 정보의 개방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관심과 학습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음란 사이트, 폭력성 게임 등의 유해한 정보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 중에서 음란 사이트는 청소년기의 성적 호기심 유발로 쉽게 인터넷에 빠져들게 한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혼란 속에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 편하고 부담 없이 친구들을 사귀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인터넷에 쉽게 중독이 되게 하고, 또한 부담 없이 관계를 쉽게 끊어 버릴 수도 있기에 현실세계에서처럼 친구간의 강한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하여 현실세계에서는 친구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현실에서 불

평등의 원인이 되었던 요소들에 구속되지 않고, 보다 개방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15].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는 이유를 Suler는 몇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실험하고 탐색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불안정감을 통제하게 된다. 둘째,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 즉,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나타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가족과 부모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물리적으로 가족과 떠나지 않으면서 모험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좌절감을 발산하도록 한다. 인터넷을 통해 빠른 반응과 공격적인 충동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하였다[8].

또한, Young은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인터넷 자체의 영향력에서 찾았다[16].

첫째,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이다. 이것은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상대방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제재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인터넷의 부작용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둘째, 인터넷이 주는 편리성과 접근가능성이다. 인터넷과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현실탈출이다. 인터넷 공간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다른 도피처를 제공해줌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잊게 해주고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런 현실탈출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인터넷에 접속해있는 동안에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

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넷째, 인터넷을 통해 느끼는 통제감 및 영향력 행사이다. 인터넷은 단순히 수동적인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예를 들면, 온라인게임은 사용자가 주인공이 되어 게임 스토리를 주도할 수도 있고 게임 내의 레벨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도 한다.

다섯째, 인터넷의 유희성이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은 많은 흥밋거리들이 있다. 특히 인터넷 게임은 혼자서 즐기는 게임들과는 달리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게임들이 대부분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경쟁심이 증가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며, 실제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의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의 쾌감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빠져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인터넷을 통해 얻는 사회적 지지와 인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와 인정은 실제 생활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진다. 특히 대인공포증이나 수줍음이 많은 사람의 경우 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한 뒤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고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과 대화함으로써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일곱째,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인격의 창출이다. 인터넷에서는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의 모습도 만들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으로 행세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성격의 자신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의 자신과 가상의 자신이 혼동될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다.

여덟째, 인터넷을 통한 성적 만족이다.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음란채팅을 통해 거침없이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도 인터넷 중독의 중요한 원인이다.

Young과 Rodgers는 인터넷 중독자들은 자기 의존적이고, 독립된 활동에 강한 선호를 보이며,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매우 예민하고 과도하게 경계적이며 매우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면대면 상황에서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타인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의 성격은 인터넷에서의 익명의 상호작용에 강하게 끌리게 되고 현실에서보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17]. Young은 인터넷에 잘 빠져드는 사람의 특성을 이미 심각한 정서적 문제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 이전에 중독경험이 있었던 사람, 자신의 정체감에 불만이 있는 사람 등이라고 하였다[16].

인터넷 중독의 원인 중 하나인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18,19], 가족과의 의사소통[20], 부모의 양육태도[21,22,23], 부모의 감독 및 통제[24] 등이 확인되었다.

환경 및 또래집단 요인으로는 생활환경[25], 가정환경[26], 학교환경[18], 또래 및 친구와의 관계[27] 등이 확인되었다.

결국 인터넷에 중독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까지 이르는 데에는 인터넷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특성, 그리고 가정환경, 학교환경, 또래집단 등 사회적 환경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순묵 등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인터넷 중독 관련 척도들에서 포함시키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13가지로 구분하여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13]. 그러나 각 요인들은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원인, 과정, 결과의 요소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표-1> 인터넷 중독의 하위 구성요인별 개념

구성요인	개념정의
직업/ 학업 태도변화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과다사용 여부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상의 결과요소
신체적 문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수면시간의 부족, 근 골격계 질환의 여부, 지속적인 각성상태의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성 호르몬의 분비의 증가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
대인관계 손상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대인관계에 관심이 저하되고 극단적으로 관계의 단절까지 나타나는 것
긍정적 기대	인터넷은 즐거움을 주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현실 검증력 문제	가상의 공간과 현실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판단 및 대처 능력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
심리적 몰입 및 집착	인터넷에 몰두되어 현실의 유구나 책임보다는 생활의 중심이 인터넷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상태
금단	인터넷을 중단하여 심각한 초조감이나 불안감 및 현실생활의 적응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것
내성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동일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점차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되고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못하게 되면 심리적인 초조감을 경험하는 것
비도덕적 행동	인터넷을 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 돈을 훔치거나 가상의 공간에게 사기나 절도행위를 하는 것
부적응 행동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개념
가상의 정체성 추구	인터넷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가상공간에 몰입하게 되어 현실의 내가 아닌 가상공간의 새로운 자아, 자신을 나타내는 또 다른 나에 집중하여 현실의 내가 느끼는 불만이나 부족감을 가상의 공간의 나를 대치되어 있는 양상
가상관계 추구	가상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맥락과 연관되어 면대면으로 만나는 현실적인 대인관계보다 가상의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친밀감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는 상태
부정적 정서경험	생활에서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업무나 역할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누적되어 더욱 심리적인 불편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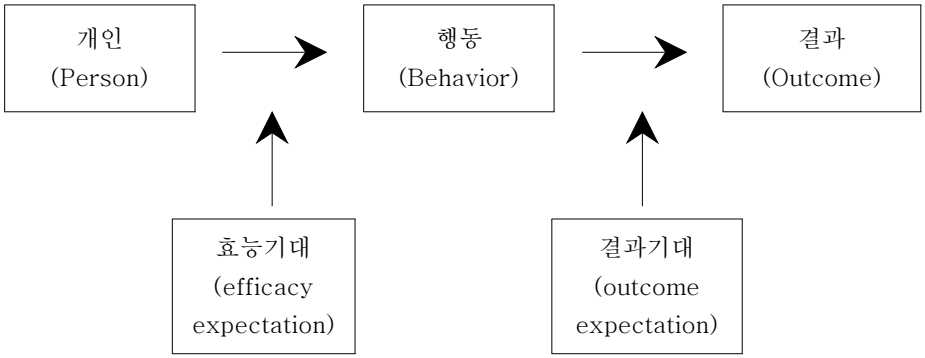
2.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특성

인간의 행동이 발생하는 기제에 대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들 수 있다[28]. 자기효능감은 자신감(self-confidence)과 자기존중감(self-esteem), 자아(self)개념과 구별된다. 자신감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의 강도를 의미하지만 자기효능감은 그 믿음과 확신의 강도뿐만 아니라 인지된 능력의 구체적인 수준까지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존중감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자아개념이 전체적인 자아와 관련한 느낌이나 믿음 또는 판단 등과 같은 단일한 하나의 척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자기효능감은 자아개념의 한 특수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29].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의 기대인 결과기대와 효능기대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30]. 결과기대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수반할 것이라는 예측을 의미한다. 효능기대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행동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즉,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수반할 것인가를 알지만, 만약 그 결과에 필요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효능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기대에 있어서 회의를 느낀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효능기대와 결과기대가 둘 다 존재할 때 행동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효능기대와 결과기대가 행동과 결과에 미치는 것을 나타낸 것이 [그림-1]이다. 이처럼 자기효능감과 수행은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좋은 수행을 보인다.



[그림-1] 효능기대와 결과기대 (Bandura)

2)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중독

가상공간에서의 활동 역시 인간행동의 일종이므로, 가상공간이라는 상황에서 자신이 유능할 것이라는 판단과 가상공간의 사용이 자신에게 충분히 강화물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념은 현실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신념을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며 인터넷 자신감, 학습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인터넷 자신감과 학습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인터넷 자신감은 자신이 친구들보다 인터넷을 더 잘 활용하고,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하는데 충분한 만큼 인터넷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유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인터넷 자신감이라고 정의한다. 학습효능감은 인터넷을 사용하면 공부나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인터넷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학습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예측하는 기대를 학습효능감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면서 그 하위요인에 관계형성 효능감과 의사교환 효능감을 포함시키고 있다. 관계형성 효능감은 개인이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능감(competence)에 대한 인식으로 설명된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효능감을 연구하면서 관계형성 효능감이라는 하위요인을 중

요하게 포함하는 까닭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대인관계의 밀접한 연관 때문이다. 발달적 특성상 청소년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유능하다고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사회적 가치와 유능감을 대인관계에서 확인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경쟁 사회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인성 교육보다 학업 능력 향상에만 관심을 가진다. 심리적으로 예민하고 또래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현실에서의 미해결과제로 인한 자존감 부족과 대인관계의 실패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새로운 자아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현실세계의 문제를 잊을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홀로 세계'인 인터넷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을 지닌 현실생활에서 보다, 접근 가능성이 용이하고, 통제감, 흥미감, 익명성을 지닌 가상공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가상공간 내에서 정보와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기대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강화를 얻게 되어 더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인터넷에 몰입하게 될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3.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력

1) 자기통제력의 개념과 특성

자기통제력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다[31]. 자기통제(self-control)라는 개념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학자에 따라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자기통제는 개인의 독특한 사고와 행위를 지도하는 자기(self)가 외적인 조건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며, 외적 영향이 없는 조

건하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형식의 행동통제방식이다[32].

Kopp는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제지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33]. Logue는 자기통제력을 덜 지연되는 작은 결과(a less delayed, smaller outcome)보다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a more delayed, larger outcome)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34]. 여기에서 덜 지연되는 작은 결과를 선택하는 것은 충동성(impulsiveness)으로, 자기통제력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충동적인 경향이 높은 사람은 조급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다[35].

Young은 인터넷 중독 집단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충동-통제 장애(impulse-control difficult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0]. 연구경향들을 종합해보면 자기통제력은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과 같은 성취 지향적인 사회에서 미래의 성취를 위해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는 일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공격성, 정서, 도덕성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의적 특성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기 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충동 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청소년이 중독적 행동에 빠지게 되는 것을 단순히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비롯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조절하는 근본적인 능력에서 발달상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융통성이 없고 미숙한 방어기제, 감정조절 능력과 현실 수행능력 중 판단장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자기와 대

상과의 관계 수립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이들 청소년들은 약물중독이나 행동적 중독에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쉽게 빠질 위험이 있다[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동적이고 자신위주로 생각하며,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경향이 있는 등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로써 자기통제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기통제력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회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2)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기통제력이 언급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충동조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현실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적절한 노력을 하는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기다리거나 오랜 시간을 요하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이를 가상공간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37].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은 학교에서도 성공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많이 겪게 되며 결국 자신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상공간의 중독적 사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송원영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이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38]. 낮은 자기통제력은 시간의 경과와 관련하여 보다 짧은 기간에 얻을 수 있는 작은 강화물을, 어렵고 큰 강화물보다 먼저 선택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 당시 제공되는 인터넷상의 강화물의 영향을 벗어나 현실생활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자기통제력이 높

을 때 인터넷 중독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이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욕망의 레이스를 질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브레이크를 달아주는 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실제로 자기통제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 정도가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을 보면, 인터넷 중독치료를 위해서는 자기통제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39].

반면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 번 인터넷에 접속한 이후에 현실생활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접속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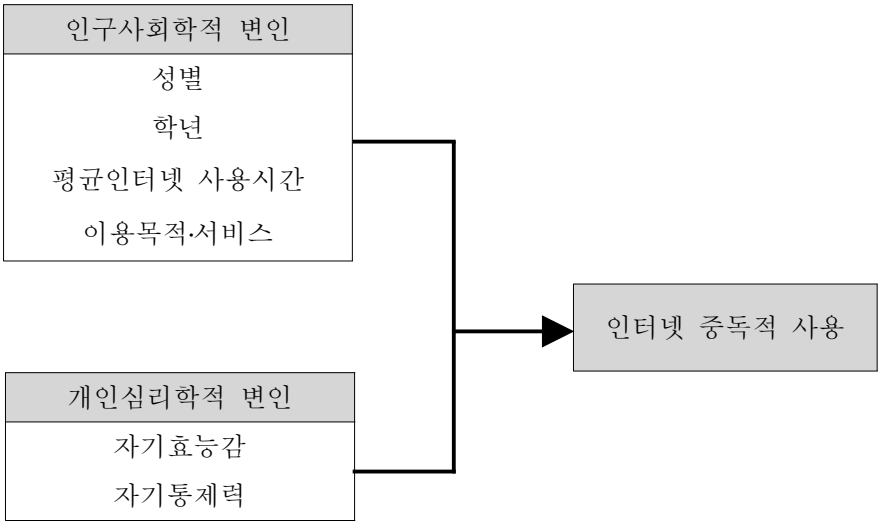
이는 약물중독에서 제공되는 신체적 만족감을 건강의 상실보다 우선하는 것, 병적도박에서 제공되는 짜릿함과 스릴이 이후에 닥칠 파산보다 우선 되는 것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인터넷 중독의 영향 요인 중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에 따라 일반사용자 집단, 잠재적 위험 사용자 집단, 고위험 사용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학년과 성별에 따라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영향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내용을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표집 방법은 동구에 소재하는 전체 고등학교 중 2개교(남고·여고)를 임의 표집 하였다. 참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선생님과 부모님들께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지도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담임교사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자기 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질문지를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40분 정도였다. 총 413명으로부터 유효한 응답을 확보하였으며, 각 학년의 비율과 성별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학년 및 성별 최종 분석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연구 대상자의 학년 및 성별 인원 분포

관련변인	구분	성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학년	1학년	101(48.6)	107(51.4)	208(100)
	2학년	100(48.8)	105(51.2)	205(100)
전체		201(48.7)	212(51.3)	413(100)

3. 측정 도구

1)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중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대부분은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Young의 척도를 이용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인터넷 중독자로 나타나는 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번안과정에서부터 연구자에 따라 변용되었고, 또한 중독자 선별기준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하는 척도의 기준을 달리함으로 인해 연구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각 연구결과들은 상호비교가 어려웠다[4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즘 게임·채팅·개인 블로그(미니홈피) 관리를 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상생활 장애, 현실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내성,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의 7가지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모두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들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때때로 그렇다’에 2점, ‘자주 그렇다’에 3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을 주었다.

본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얻은 전체 인터넷 중독 진단검사 신뢰도계수는 0.958이었고,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하부 문항 간에는 내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하위 요인별 해당 문항 내용은 <표-3>와 같다.

<표-3> 인터넷 중독 진단 검사의 하위요인별 내용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내 용
1. 일상생활장애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1, 2, 3, 4, 5, 6, 7, 8, 9	시력· 수업· 건강 장애, 생활, 과제 미해결, 성적부진, 지속적 사용, 두통, 가족과의 마찰
2. 현실구분장애 (Disturbance of Reality Testing)	10, 11, 12	꿈, 환상, 비도덕적 행위
3. 긍정적 기대 (Addictive Automatic Thought)	13, 14, 15, 16, 17, 18	스트레스 해소, 흥미, 편안함, 자신감, 자유
4. 금단 (Withdrawal)	19, 20, 21, 22, 23, 24	중단 불가능, 연상, 안절부절, 무의미한 생활, 분노
5.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25, 26, 27, 28, 29	이해· 인정· 대우받기, 실천하기, 친구사귀기
6. 일탈행동 (Deviate Behavior)	30, 31, 32, 33, 34, 35	약속어기기, 숨기기, 속이기, 수업불참, 비용증가
7. 내성 (Tolerance)	36, 37, 38, 39, 40	장시간 사용, 계속 사용, 중단실패, 주변의 지적, 사용중단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40]’의 중독집단 분류기준 방법에 근거하여 표준점수 산출 후 표준 점수의 분표에 따라 사용자 진단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총점과 7개의 하위척도 점수들은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표준화 점수로 변환되었다. 또한 추출된 7개의 하위요인 척도에서 중독에서의 내용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및 금단, 내성의 하위 3가지 척도점수에서도 극단적인 문제수준을 보이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터넷 중독 성향 집단을 구분하였다.

● 고위험자군(집단1)

: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의 세 하위요인 모두 표준화 점수(T점수) 70점 이상이거나 총점의 표준화 점수가 70점 이상인 집단

● 잠재적위험자군(집단2)

: 집단 1에 속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의 세 하위요인 중 적어도 한 요인에서 표준화점수 63점 이상(상위10%)이거나 총점의 표준화점수가 63점 이상인 집단

● 일반 사용자군(집단3)

: 위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집단

<표-4> 인터넷 중독 수준 분류 기준표 (원점수)

구 분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총 점	101점 이상	86점 이상	85이하
1요인	26이상	22점 이상	21이하
4요인	18이상	14점 이상	13이하
7요인	17이상	14점 이상	13이하

1요인 : 일상생활장애
4요인 : 금단
7요인 : 내성

2)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척도

가상공간 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송원영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윤지영 척도[41]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인적 효능감과 대인관계 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인터넷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20개 문항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5>과 같다.

<표-5> 인터넷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효능8	0.810	0.147	0.131	-0.214
효능5	0.768	0.306	0.171	-0.074
효능9	0.745	0.098	0.130	-0.232
효능6	0.735	0.192	0.210	-0.131
효능7	0.725	0.218	0.171	-0.120
효능3	0.203	0.818	0.250	-0.120
효능2	0.210	0.760	0.153	-0.045
효능1	0.071	0.688	0.226	-0.213
효능4	0.252	0.650	0.140	-0.230
효능10	0.295	0.617	0.361	-0.040
효능14	0.210	0.112	0.716	-0.166
효능12	0.289	0.222	0.713	-0.003
효능20	0.172	0.231	0.693	-0.090
효능17	-0.034	0.163	0.652	-0.159
효능15	0.244	0.292	0.556	-0.033
효능16	-0.176	-0.137	0.039	0.747
효능18	-0.128	-0.065	0.120	0.729
효능13	-0.064	-0.116	0.009	0.723
효능11	-0.233	-0.177	0.064	0.700
효능19	-0.068	-0.022	0.370	0.595
eigen-value	3.436	3.027	2.817	2.770
설명력	17.179	15.137	14.085	13.851
누적설명력	17.179	32.317	46.401	60.252
Cronbach's α	0.873	0.840	0.785	0.780

분석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전체 누적설명력은 60.3%가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요인과의 상관정도인 요인적재치가 최소한 0.5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반면 2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도 적합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요인1은 인터넷을 통한 학습 활용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를 '학습효능감'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인터넷자신감'이라고 하였다. 요인3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관계형성효능감', 요인4는 정보와 의사를 주고받는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사교환효능감'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간에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뢰도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두 0.70이상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즉 문항들 간의 응답 일관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Gottfredson과 Hirschi가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현숙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참고로 남현미가 보다 쉽게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42].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총 20문항 구성되어 있다.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는 보다 집중력이 있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며,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이용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는 충동적이고 자신위주로 생각하며,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경향이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자기통제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답하게 되어 있으며 척도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다. 자기통제력 20개 문항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6>과 같다.

요인분석결과, 자기통제력은 총 3개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총 20개 문항 중에서 문항16, 문항17, 문항20번은 2개의 요인에 동시에 높은 상관성을 보이거나 혹은 모든 요인에서 0.40 이하의 상관성을 보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저해하고 있어 제거하였다.

<표-6> 자기통제력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통제12	0.758	-0.132	0.065
통제4	0.713	-0.146	0.096
통제8	0.690	0.139	-0.179
통제10	0.675	-0.186	0.079
통제2	0.651	0.009	-0.051
통제1	0.626	0.169	-0.188
통제11	0.608	0.218	-0.209
통제13	0.550	-0.022	-0.256
통제15	0.544	-0.088	-0.204
통제5	-0.018	0.815	0.057
통제3	-0.013	0.690	0.206
통제9	-0.003	0.670	0.238
통제14	-0.008	0.647	0.119
통제18	-0.132	-0.033	0.762
통제7	-0.066	0.245	0.658
통제6	-0.061	0.269	0.633
통제19	-0.157	0.277	0.593
eigen-value	3.850	2.396	2.123
설명력	22.645	14.093	12.486
누적설명력	22.645	36.737	49.223
Cronbach's α	0.831	0.723	0.695

먼저 요인1은 평상시 집중과 규율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문항으로서 이를 '일상태도 통제력'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음 요인2는 타인과의 대화나 관계에서의 통제력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이를 '대인관계 통제력'이라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요인3은 충동성과 행동의 자제와 관련된 문항으로서 이를 '자기행동 통제력'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신뢰도분석 결과, 모든 요인의 신뢰도는 0.60이상으로 나타나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기통제력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회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크다고 본다.

4. 자료 분석 및 처리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된 청소년들의 설문데이터는 SPSS 15.0 (v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척도인 인터넷 중독정도,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의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정도,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t-test분석을 적용하였다.

넷째, 인터넷 중독정도,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간에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인터넷 중독정도가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분석

1. 인터넷 중독 집단의 분류

광주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질문지가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40분 정도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학년 및 성별 최종 분석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 연구 대상자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빈도

변수	구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전체	통계량
학년	1학년	172(85.1)	18(8.9)	12(5.9)	202(100)	χ^2=0.116
	2학년	162(84.4)	19(9.9)	11(5.7)	192(100)	p=0.994
성별	남학생	144(76.2)	27(14.3)	18(9.5)	189(100)	χ^2=20.879
	여학생	190(92.7)	10(4.9)	5(2.4)	205(100)	p=0.000
전체		334(84.8)	37(9.4)	23(5.8)	394(100)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일반 사용자군이 334명(84.8%), 잠재적 사용자군은 37명(9.4%), 고위험 사용자군은 23명(5.8%)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의 인터넷 중독집단별 구성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즉 학년 간에 인터넷 중독집단의 비율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 보면,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의 잠재적 사용자군과 고위험사용자군의 비율이 더욱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집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2.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중독 성향

먼저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질문에 1시간 미만이 194명(47.4%), 1~2시간이 135명(33.0%), 2~3시간이 48명(11.7%), 3~4시간은 14명(3.4%), 4시간 이상은 18명(4.4%)으로 각각 나타나, 50%가량이 1시간 미만, 80%가량이 2시간 이하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중독 성향의 평균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인터넷을 사용한 경력은 1년 이상~2년 미만은 4명(1.0%), 2년 이상~3년 미만은 4명(1.0%), 3년 이상~4년 미만은 12명(2.9%), 4년 이상~5년 미만은 50명(12.1%), 5년 이상은 342명(83.0%)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한 지 5년 이상, 즉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온라인게임이 118명(28.6%), 전자메일은 7명(1.7%), 자료실은 43명(10.4%), 개인블로그(미니홈피)는 144명(35.0%), 성인사이트는 13명(3.2%), 인터넷방송은 29명(7.0%), 채팅은 11명(2.7%), 기타는 47명(11.4%)으로 각각 파악되었으며, 기타에는 드라마나 영화관람 등이 있었다. 즉 인터넷을 통해 주로 개인홈피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을 볼 수 있다.

주이용 장소로는 자기 집이 359명(87.6%), 학교가 8명(2.0%), PC방은 34명(8.3%), 친구 집은 6명(1.5%), 기타는 3명(0.7%)으로 파악되어, 대다수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집이나 학교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응답은 64명(15.6%)에 그친 반면, '쉽다'는 응답은 245명(59.7%)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101명(24.6%)으로 나타나 주변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주위에 이용할 수 있는 PC방의 수를 파악한 결과, 0개가 12명(2.9%), 1~2개는 89명(21.7%), 3~4개는 142명(34.6%), 5~6개는 75명(18.3%), 7개 이상은 92명(22.4%)으로 각각 나타나, 3개 이상 주위에 PC방이 있는 경우가 75%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장 큰 동기에 대해서는 '재미가 있어서'가 180명(43.8%),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109명(26.5%),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가 8명(1.9%),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16명(3.9%), '스트레스해소를 위해서'는 81명(19.7%), 기타 17명(4.1%)으로 파악되었으며, 기타는 대부분 '그냥'이라고 응답하여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 동기에서는 재미와 정보의 획득이 70%가량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인터넷사용정도에 대한 의견을 스스로 응답한 결과, '적게 사용한다'는 응답은 101명(24.5%)으로 나타났고 '많이 사용한다'는 111명(26.9%), '보통'은 200명(48.5%)으로서 파악되었다. 중독 수준에 따라서는 중독 수준이 심할수록 인터넷 사용량에 대하여 자각하는 집단 내 비율은 높아졌다.

인터넷에 중독되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35명(57.1%), '그렇다'는 응답은 82명(19.5%), '보통'은 94명(22.9%)으로서 중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과반수 이상, 중독되었다는 학생은 20%가량으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인터넷사용에 대해 지적을 받거나 충고 받은 경험은 '없다'는 학생이 254명(61.7%), '있다'는 학생은 99명(24.1%), '보통'은 59명(14.3%)으로 나타났다.

<표-8>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 미만	194	47.4
	1-2시간	135	33.0
	2-3시간	48	11.7
	3-4시간	14	3.4
	4시간 이상	18	4.4
	합계	409	100.0
인터넷 사용경력	1년 이상~2년 미만	4	1.0
	2년 이상~3년 미만	4	1.0
	3년 이상~4년 미만	12	2.9
	4년 이상~5년 미만	50	12.1
	5년 이상	342	83.0
	합계	412	100.0
주이용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게임	118	28.6
	전자메일	7	1.7
	자료실	43	10.4
	개인블로그(미니홈피)	144	35.0
	성인사이트	13	3.2
	인터넷방송	29	7.0
	채팅	11	2.7
	기타	47	11.4
	합계	412	100.0
주이용 장소	자기 집	359	87.6
	학교	8	2.0
	PC방	34	8.3
	친구 집	6	1.5
	기타	3	0.7
	합계	410	100.0
인터넷 사용 용이성	매우 어렵다	26	6.3
	조금 어렵다	38	9.3
	보통이다	101	24.6
	조금 쉽다	60	14.6
	매우 쉽다	185	45.1
	합계	410	100.0

주변 PC방 개수	0개	12	2.9
	1-2개	89	21.7
	3-4개	142	34.6
	5-6개	75	18.3
	7개 이상	92	22.4
	합계	410	100.0
인터넷 이용 동기	재미가 있어서	180	43.8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9	26.5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8	1.9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16	3.9
	스트레스해소를 위해서	81	19.7
	기타	17	4.1
	합계	411	100.0
인터넷 사용 의견	아주 적게 사용한다.	36	8.7
	조금 적게 사용한다.	65	15.8
	보통이다	200	48.5
	조금 많이 사용한다.	85	20.6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26	6.3
	합계	412	100.0
인터넷 중독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14	27.7
	별로 그렇지 않다	121	29.4
	보통이다	94	22.9
	조금 그렇다	72	17.5
	아주 그렇다	10	2.4
	합계	411	100.0
주변 충고 경험	전혀 없다	133	32.3
	별로 없다	121	29.4
	보통이다	59	14.3
	조금 있다	81	19.7
	자주 있다	18	4.4
	합계	412	100.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이번 절에서는 조사응답 대상인 청소년들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t-test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1) 학년에 따른 차이분석

학년에서 따라서는 인터넷 중독 및 자기통제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p>0.05),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자기효능감도 대부분 유사하였으나, 학습효능감은 1학년이 2.81로 2학년 2.61보다 약 0.20점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나타나,(p<0.05) 1학년의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9> 학년에 따른 차이분석

변수	하부 변수	학년	평균	표준편차	t-value	p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1학년	67.28	17.52	0.194	0.847
		2학년	66.89	22.67		
인터넷 자기효능감	인터넷 자신감	1학년	2.77	0.86	0.932	0.352
		2학년	2.69	0.94		
	학습효능감	1학년	2.81	0.77	2.488	0.013*
		2학년	2.61	0.88		
	관계형성효능감	1학년	2.75	0.74	1.080	0.281
		2학년	2.66	0.88		
	의사교환효능감	1학년	3.63	0.67	-1.204	0.229
		2학년	3.72	0.78		
자기통제력	일상태도통제력	1학년	2.93	0.58	0.608	0.544
		2학년	2.89	0.74		
	대인관계통제력	1학년	3.89	0.66	0.094	0.925
		2학년	3.89	0.71		
	자기행동통제력	1학년	3.14	0.75	-1.086	0.278
		2학년	3.22	0.82		

p<0.05 ** p<0.01 *** p<0.001

2)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인터넷 중독정도에서 남녀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남학생이 73.19점으로 중독 정도가 여학생 61.46점에 비해 약 11.5점 가량 높아, 남학생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자기효능감에서는 관계형성효능감이 남학생이 2.80으로서 여학생 2.62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p<0.05), 남학생의 인터넷을 통한 관계형성효능감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에서는 자기행동통제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남학생이 3.32로 여학생 3.05보다 높게 파악되었다.

<표-10>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변수	하부변수	성별	평균	표준편차	t-value	p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남학생	73.19	22.11	5.947	0.000***
		여학생	61.46	16.34		
인터넷 자기효능감	인터넷 자신감	남학생	2.70	1.00	-0.767	0.444
		여학생	2.76	0.80		
	학습효능감	남학생	2.76	0.91	1.013	0.312
		여학생	2.67	0.76		
	관계형성효능감	남학생	2.80	0.85	2.192	0.029*
		여학생	2.62	0.77		
	의사교환효능감	남학생	3.68	0.77	0.028	0.978
		여학생	3.68	0.68		
자기통제력	일상태도통제력	남학생	2.93	0.70	0.572	0.568
		여학생	2.89	0.63		
	대인관계통제력	남학생	3.86	0.71	-0.811	0.418
		여학생	3.92	0.66		
	자기행동통제력	남학생	3.32	0.79	3.642	0.000***
		여학생	3.05	0.75		

p<0.05 ** p<0.01 *** p<0.001

4. 상관관계분석

이번 절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에 대한 영향관계인 회귀분석 이전에 투입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수준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표-1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11> 인터넷 중독, 인터넷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인터넷 중독	자신감	학습 효능감	관계형성 효능감	의사교환 효능감	일상태도 통제력	대인관계 통제력	자기행동 통제력
인터넷 중독	1							
자신감	0.181**	1						
학습 효능감	0.339**	0.550**	1					
관계형성 효능감	0.294**	0.491**	0.587**	1				
의사교환 효능감	-0.337**	-0.406**	-0.376**	-0.335**	1			
일상태도 통제력	-0.018	0.333**	0.293**	0.314**	-0.132**	1		
대인관계 통제력	-0.270**	-0.156**	-0.178**	-0.214**	0.314**	-0.056	1	
자기행동 통제력	-0.190**	-0.215**	-0.219**	-0.288**	0.265**	-0.277**	0.407**	1

* $p<0.05$ ** $p<0.01$

상관관계 분석결과,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 학습효능감, 관계형성효능감과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반면, 의사교환효능감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즉 이 결과는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수준인 인터넷 이용 자신감,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의 효능감, 인터넷에서 관계의 형성 효능감은 높아지는 반면, 인터넷에서 의사교환에 대한 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보면, 일상태도 통제력과의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p>0.05$), 대인관계통제력과 자기행동통제력과는 유의미한 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이 의미는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청소년들의 통제력,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통제 혹은 자신의 행동적인 통제력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인터넷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절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해 단일회귀분석(Singl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1)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우선 모형의 설명력과 유의성을 보면,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3%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표-12>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197	0.157		14.024	0.000
인터넷 중독	0.008	0.002	0.181	3.625	0.000
R2=0.033	13.141	p=0.000			

* p<0.05 ** p<0.01 *** p<0.001

또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자신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즉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 인터넷 중독이 학습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모형의 설명력과 유의성을 보면,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11.5%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또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학습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즉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3>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777	0.140		12.731	0.000
인터넷 중독	0.014	0.002	0.339	7.101	0.000
R2=0.115	50.418	p=0.000			

* p<0.05 ** p<0.01 *** p<0.001

3)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의 유의성과 설명하는 정도는 약 8.7%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표-14>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18	0.137		13.972	0.000
인터넷 중독	0.012	0.002	0.294	6.070	0.000
R2=0.087	36.848	p=0.000			

* p<0.05 ** p<0.01 *** p<0.001

또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관계형성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즉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인터넷에서 관계형성효능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표-15>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487	0.122		36.872	0.000
인터넷 중독	-0.012	0.002	-0.337	-6.984	0.000
R2=0.114	48.781	p=0.000			

* p<0.05 ** p<0.01 *** p<0.001

우선 모형의 설명력과 유의성을 보면,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11.4%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또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의사교환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즉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인터넷에서 타인과의 의사교환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인터넷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1)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0.0%로 거의 설명력이 없으며, 회귀모형 역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6). 이러한 결과는 곧 인터넷 중독과 일상태도통제력과는 관련성이 매우 미미한 것임을 의미하며, 인터넷 중독의 유의성 역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p>0.05).

<표-16>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964	0.118		25.119	0.000
인터넷 중독	-0.001	0.002	-0.018	-0.362	0.717
R2=0.000	0.131	p=0.717			

* p<0.05 ** p<0.01 *** p<0.001

2)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7>과 같다.

<표-17>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518	0.119		37.967	0.000
인터넷 중독	-0.009	0.002	-0.270	-5.503	0.000
R2=0.073	F=30.278	p=0.000			

* p<0.05 ** p<0.01 *** p<0.001

모형의 설명력과 유의성을 보면,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7.3%으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또한 인터넷 중독은 대인관계통제력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즉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대인관계통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표-18>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71	0.137		26.734	0.000
인터넷 중독	-0.008	0.002	-0.190	-3.817	0.000
R2=0.036	F=14.569	p=0.000			

* p<0.05 ** p<0.01 *** p<0.001

우선 모형의 설명력과 유의성을 보면,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6%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또한 인터넷 중독은 자기행동통제력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즉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자기행동통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에 대한 영향에서 학년에 대한 차이

1)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1)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대한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9>와 같다.

<표-19>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2.197	14.024	0.000	2.235	13.686	0.000
인터넷 중독	0.008	3.625	0.000	0.008	3.615	0.000
학년(2학년)				-0.074	-0.823	0.411
R2		0.033			0.035	
F변화량		13.141			0.677	
p		0.000			0.411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2에서 학년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은 약 0.2%가량 증가하고 F변화량은 0.677에 그쳐, 학년이 자신감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를 곧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라 영향정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자기효능감 중 학습효능감에 대한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0>와 같다.

<표-20>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1.777	12.731	0.000	1.870	12.910	0.000
인터넷 중독	0.014	7.101	0.000	0.014	7.094	0.000
학년(2학년)				-0.180	-2.255	0.025
R2		0.115			0.126	
F변화량		50.418			5.083	
p		0.000			0.025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 학년이 새롭게 투입됨으로써 모형2의 설명력은 모형1에 비해 약 1.1%증가하였으며, F값은 5.083 증가하여 이러한 향상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학년변수는 학습효능감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으며, 학년변수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때,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인터넷에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학습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자기효능감 중 관계형성효능감에 대한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1>과 같다.

<표-21>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1.918	13.972	0.000	1.964	13.726	0.000
인터넷 중독	0.012	6.070	0.000	0.012	6.055	0.000
학년(2학년)				-0.090	-1.137	0.256
R2		0.087			0.090	
F변화량		36.848			1.294	
p		0.000			0.259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2에서 학년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은 약 0.3%가량 증가하고 F변화량은 1.29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학년이 자신감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를 곧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라 영향정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자기효능감 중 의사교환효능감에 대한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2>와 같다.

<표-22>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4.487	36.872	0.000	4.451	35.029	0.000
인터넷 중독	-0.012	-6.984	0.000	-0.012	-6.967	0.000
학년(2학년)				0.071	1.005	0.316
R2		0.114			0.116	
F변화량		48.781			1.010	
p		0.000			0.316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2에서 학년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은 약 0.2%가량 증가하고 F변화량은 1.010에 그쳐, 학년이 의사교환효능감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를 곧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라 영향정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인터넷 중독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1)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먼저 자기통제력 중 일상태도통제력에 대한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2에서 학년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은 약 0.1%가량 증가하고 F변화량은 1.010에 그쳐, 학년이 일상태도통제력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를 곧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3>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2.964	25.119	0.000	2.975	24.164	0.000
인터넷 중독	-0.001	-0.362	0.717	-0.001	-0.368	0.713
학년(2학년)				-0.021	-0.319	0.750
R2		0.000			0.001	
F변화량		0.131			0.102	
p		0.717			0.750	

* p<0.05 ** p<0.01 *** p<0.001

(2)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자기통제력 중 대인관계통제력에 대한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2에서 학년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은 거의 변화가 없고 F변화량은 0.018에 그쳐, 학년이 대인관계통제력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를 곧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라 영향정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4>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4.518	37.967	0.000	4.522	36.507	0.000
인터넷 중독	-0.009	-5.503	0.000	-0.009	-5.497	0.000
학년(2학년)				-0.009	-0.135	0.893
R2		0.073			0.073	
F변화량		30.278			0.018	
p		0.000			0.893	

* p<0.05 ** p<0.01 *** p<0.001

(3)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이번에는 자기통제력 중 자기행동통제력에 대한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5>와 같다.

<표-25>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3.671	26.734	0.000	3.639	25.382	0.000
인터넷 중독	-0.008	-3.817	0.000	-0.007	-3.793	0.000
학년(2학년)				0.062	0.800	0.424
R2		0.036			0.038	
F변화량		14.569			0.640	
p		0.000			0.424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2에서 학년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은 약 0.2%가량 증가하고 F변화량은 0.640에 그쳐, 학년이 자기행동통제력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를 곧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에 따라 영향정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에 대한 영향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

이번 절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형1에서는 인터넷 중독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 모형2에서는 성별을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하여 추가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형2에서 새롭게 투입되는 설명 더미변수가 모형의 설명력 향상에 유의한 기여를 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역시 유의하다면, 이는 곧 성별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1)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표-26>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2.197	14.024	0.000	2.198	14.081	0.000
인터넷 중독	0.008	3.625	0.000	0.009	4.051	0.000
성별(남)				-0.186	-1.971	0.049
R2		0.033			0.043	
F변화량		13.141			3.886	
p		0.000			0.049	

* p<0.05 ** p<0.01 *** p<0.001

성별이 새롭게 투입됨으로써 모형2의 설명력은 모형1에 비해 약 1%증가하였으며, F값은 3.886 증가하여 이러한 향상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성별변수는 자신감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으며, 성별변수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때,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하면 인터넷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2에서 성별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은 약 0.2%가량 증가하고 F변화량은 0.842에 그쳐, 성별이 학습효능감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27>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1.777	12.731	0.000	1.777	12.730	0.000
인터넷 중독	0.014	7.101	0.000	0.015	7.066	0.000
성별(남)				-0.077	-0.918	0.359
R2		0.115			0.117	
F변화량		50.418			0.842	
p		0.000			0.359	

* p<0.05 ** p<0.01 *** p<0.001

이러한 결과를 곧 인터넷 중독이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정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모형2에서 성별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은 거의 증가가 없고, F변화량 역시 0.290에 그쳐, 성별이 관계형성효능감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를 곧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정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8> 인터넷 중독이 관계형성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1.918	13.972	0.000	1.918	13.958	0.000
인터넷 중독	0.012	6.070	0.000	0.012	5.654	0.000
성별(남)				0.045	0.538	0.591
R2		0.087			0.087	
F변화량		36.848			0.290	
p		0.000			0.591	

* p<0.05 ** p<0.01 *** p<0.001

(4)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자기효능감 중 의사교환효능감에 대한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9>와 같다.

<표-29>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4.487	36.872	0.000	4.488	37.056	0.000
인터넷 중독	-0.012	-6.984	0.000	-0.013	-7.349	0.000
성별(남)				0.160	2.179	0.030
R2		0.114			0.124	
F변화량		48.781			4.746	
p		0.000			0.030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 성별이 새롭게 투입됨으로써 모형2의 설명력은 모형1에 비해 약 1% 증가하였으며, F값은 4.746 증가하여 이러한 향상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성별변수는 의사교환효능감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터넷 중독이 의사교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으며, 성별변수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때,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일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의사교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터넷 중독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1)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먼저 자기통제력의 하위 변인 중 일상태도통제력에 대한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0>와 같다.

<표-30>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2.964	25.119	0.000	2.964	25.105	0.000
인터넷 중독	-0.001	-0.362	0.717	-0.001	-0.546	0.585
성별(남)				0.049	0.700	0.485
R2		0.000			0.002	
F변화량		0.131			0.489	
p		0.717			0.485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2에서 성별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이 단 0.2% 증가, F변화량도 0.489에 그쳐, 성별이 일상태도통제력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를 곧 인터넷 중독이 일상태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정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자기통제력의 하위 변인 중 대인관계통제력에 대한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1>과 같다.

<표-31>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4.518	37.967	0.000	4.518	37.937	0.000
인터넷 중독	-0.009	-5.503	0.000	-0.010	-5.447	0.000
성별(남)				0.042	0.608	0.543
R2		0.073			0.074	
F변화량		30.278			0.370	
p		0.000			0.543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2에서 성별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은 약 0.1%가량

증가하고 F변화량은 0.370에 그쳐, 성별이 대인관계통제력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를 곧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정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마지막으로 자기통제력의 하위 변인 중 자기행동통제력에 대한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2>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이 새롭게 투입됨으로써 모형2의 설명력은 모형1에 비해 약 5.7%증가하였으며, F값은 24.434 증가하여 이러한 향상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성별변수는 자기통제력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0.05).

<표-32> 인터넷 중독이 자기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모형1			모형2		
	B	t	p	B	t	p
(상수)	3.671	26.734	0.000	3.675	27.554	0.000
인터넷 중독	-0.008	-3.817	0.000	-0.010	-5.176	0.000
성별(남)				0.389	4.943	0.000
R2		0.036			0.093	
F변화량		14.569			24.434	
p		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터넷 중독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으며, 성별변수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때,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일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분석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일반 사용자군이 전체 중 334명(84.8%), 잠재적 사용자군은 37명(9.4%), 고위험 사용자군은 23명(5.8%)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목적, 사용활동, 사용시간 등 개인적 환경 요인을 조사하여 인터넷 중독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학년에서 따라서는 인터넷 중독 및 자기통제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1학년과 2학년이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자기효능감도 대부분 유사하였으나, 1학년이 2학년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보면,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의 잠재적 사용자군과 고위험사용자군의 비율이 더욱 높게 났다. 따라서 중독정도가 남학생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서는 남학생이 인터넷을 통한 관계형성효능감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에서는 자기행동통제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파악되었다.

넷째,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 자신감,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 효능감, 인터넷에서 관계 형성 효능감은 높아지는 반면, 인터넷에서 의사교환에 대한 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청소년들의 통제력,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통제 혹은 자신의 행동적인 통제력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 속에 중요하게 등장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

고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광주에 위치한 C고와 C여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본 연구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표집지역을 좀 더 광범위하게,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인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의 비교, 인터넷 중독에 대한 도시·농촌학교급의 비교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척도들이 자기보고식 설문지로만 이루어져 인터넷 상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상의 활동은 다양하고 또 급격히 선호도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설문지에 의존하여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대한 평가를 대변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개인적 성격변인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우와의 관계 등 사회적 변인 등의 다양한 배경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 상황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보다 실질적인 인터넷 활용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서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2] 권재환, “심리적·환경적 변인과 인터넷 게임 중독간 관계 : 대인관계 기술의 매개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3] 국민일보 (2006. 7. 6)

[4] 조선헬스 (2007. 4. 17)

[5] 한혜경,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 조절 양식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머니투데이, “21세기 질환 사이버 중독”, 2005. 6. 2

[7] 심우엽, “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심리학 2000

[8] Suler, J.,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1996

[9] Goldberg, I.,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1996.

[10]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August, 1996.

[11] 남동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2] 한경아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3] 이순묵, 반재천, 이형초, 최윤경, 이순영, “성인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14]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청소년의 pc중독 : 청소년상담문제 연구 보고서 39권”, 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15] 최영래,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6]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 김현수 역(2000) 인터넷 중독증", 1998.

[17] Young, K. S., & Rodgers, R. C.,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 25-28 1997.

[18] 이명숙,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학교 적응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9] 황희선,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 성향 및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0] 김기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 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1] 문은숙,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2] 홍찬숙,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대안불안에 따른 컴퓨터 게임 중독”,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3] 김정애,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4] 민보현, “부모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5] 양지혜,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상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6] 이청규, “중학생의 가정환경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7] 이병원, “중학생의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8] 심란희,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관련성”,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9] 이주영, “자아존중감·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자기통제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0]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31] 김현숙,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32] 김신정, “인터넷 게임 중독수준에 따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통제, 충동성의 차이비교”,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3] Kopp, C. B., “The adolesc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1982.

[34] Logue, A. W.,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1995.

[35] Barratt, E., Patton, J., Olsson, N. G., & Suker, G., “Impulsivity and paced tapping” Journal of Motor Behavior, 13, 286-300. 1983.

[36] 김정심, “인터넷 활용유형에 따른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및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7] 이계원,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38] 송원영,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9] 류진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

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40] 한국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2003.
[41] 윤지영,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2] 남현미,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부　　록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질문지입니다.

이 설문지는 시험지가 아니므로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부담 없이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의 답변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결과는 본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한 문항 한 문항은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학교 생활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정보·컴퓨터 전공

박은경

성 별	남(　) 여(　)
학 년	고1(　) 고2(　)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온라인 게임 포함)은 어느 정도 인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③ 2시간~3시간 ④ 3시간~4시간 ⑤ 4시간 이상

2. 인터넷을 사용한 경력은 얼마나 되었나요?

① 1년미만 ② 1년이상~2년미만 ③ 2년이상~3년미만

④ 3년이상~4년미만 ⑤ 4년이상~5년미만 ⑥ 5년이상

3.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① 온라인 게임 ② 전자메일 ③ 자료실 ④ 개인 블로그(미니홈페이지)

⑤ 성인사이트 ⑥ 인터넷 방송 ⑦ 채팅 ⑧ 기타( )

4.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① 자기 집 ② 학교 ③ PC방 ④ 친구 집 ⑤ 기타( )

5. 집이나 학교 등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나요?

① 매우 어렵다 ② 조금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쉽다 ⑤ 매우 쉽다

6. 주위에 이용할 수 있는 PC방은 얼마나 있나요?

① 0개 ② 1~2개 ③ 3~4개 ④ 5~6개 ⑤ 7개 이상

7.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재미가 있어서 ②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③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④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⑥ 기타 ( )

8. 나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적게 사용한다 ② 조금 적게 사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많이 사용한다 ⑤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9. 자신이 인터넷에 중독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아주 그렇다

10.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터넷 사용에 대해 중독적이라는 말을 듣거나 인터넷 사용을 줄일 것을 충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자주 있다

I.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검사(K-척도)

◉ 다음 문항을 읽고 인터넷 사용에 있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4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5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7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8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9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들과 마찰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인터넷을 하는 꿈을 꾼다.	①	②	③	④
12	인터넷 사용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①	②	③	④
13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가장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14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흥미진진해진다.	①	②	③	④
15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16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하다.	①	②	③	④
17	인터넷을 하면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8	인터넷이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란 없다.	①	②	③	④
19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20	만약 인터넷을 다시 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1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22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23	인터넷 사용 때문에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인터넷 사용을 그만두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4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25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①	②	③	④
26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7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28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29	실제 생활에서도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30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1	인터넷을 하느라고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2	부모님 몰래 인터넷을 한다.	①	②	③	④
33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①	②	③	④
34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기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5	인터넷에 빠져 있다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6	인터넷을 한번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인터넷에서 보내게 된다.	①	②	③	④
37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38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39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40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①	②	③	④

II. 인터넷 활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 척도

◉ 다음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적인 자신이 아닌 실제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에 해당하는 것에 √표를 하십시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인터넷을 더 잘 사용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하는데 충분할 만큼 인터넷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인터넷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능한 한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일이나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인터넷의 사용방법을 알면 일이나 공부나 더 잘할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하면 원하는 양의 공부나 일을 정시에 끝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일이나 공부를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학업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터넷 사용방법을 친구에게 자신있게 가르쳐 줄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인터넷 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잘하지만, 다른 사용자와 함께 하는 일에는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인터넷 상에서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채팅을 하면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인터넷에서 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인터넷에서 누군가 나에게 대한 질문을 하면 나는 종종 내가 말하고 싶은 방향으로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피해가도록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나의 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인터넷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통신을 통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대게 그렇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통신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통신상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조절하려고 할 때, 나는 종종 이를 더 악화시키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통신내의 집단활동(예를 들면, 동호회 같은)에서 중요한 역할을 쉽게 맡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I. 자기 통제력 척도

◉ 다음은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에 √표 를 하십시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정해진 규칙이나 지시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있어야 할 때 차분히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놀이나 활동에 불쑥 끼어들어 참견하거나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업시간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잘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순서없이 끼어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급하게 일을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즉시 하거나 가지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친구들과 같이 놀거나 공동작업을 할 때 다투거나 잘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일이라도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기쁜 일로 흥분했을 때나 꾸지람을 들어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을 자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주어진 과제가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사려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라도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일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열을 내지만 곧 하기 싫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스릴과 모험보다는 안전을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정보·컴퓨터교육	학 번	20058125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박 은 경 한문: 朴恩京 영문: Eun Kyoung-PARK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빛고을파크 105-305				
연락처	011-641-3459 E-MAIL: eun3187@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영문 : Effects of Teenagers' Internet Addiction on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2월 일

저작자: 박 은 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감사의 글

무한부성 [無汗不成] - 아버지께서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오며 3년간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저에게 논문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본 논문의 처음 연구계획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기틀을 잡아주시고 아버지처럼 친절하고 소상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던 이준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심사과정을 통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조범준 교수님과 김충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석사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도와준 나의 동기들 - 한참이나 어린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는 박경화 선생님, 맏언니처럼 모범을 보여주시는 정경희 선생님, 항상 웃는 얼굴로 동기들 먼저 챙기시는 채병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내 투정과 짜증 다 받아주며 힘내라고 토닥여 주며 나를 토깽이라 불러주는 만년 나의 애인 멘토 김라영양, 함께 논문쓰느라 힘들었지만 서로를 방패삼았던 밤선생 친구 올리비아 핫세 백조교 혜진양, 논문 쓰는데 간식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신 양태진 선생님과 귀여운 정수연 선생님,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애선이, 국회도서관까지 함께해준 현진이, 정신없지만 나의 든든한 학부 동기들 - 성준, 소희, 문석, 광수, 재균, 수아, 으뜸, 정수, 가은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늘 곁에서 따뜻하게 도와주신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아버지 박영준 선생님과 아침잠 많은 저를 깨우시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 최순심 여사에게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동생 홍식과도 이 작은 결실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08. 2.

박 은 경